



◀빛의 생명력과 남도의 풍광을 화폭에 담았던 오지호 화백은 남도가 배출한 대표 화가다. 사진은 오지호가 결혼을 하고 신접살림을 차렸던 화순의 생각로, 방의 한쪽 벽면이 유리창으로 돼 있다.

한국적 인상주의 개척

빛으로 남도를 비추다

화가 오지호(1905~1982)하면 떠오르는 집이 세 곳이 있다. 작품속에 존재하는 개성의 '남향집'과 그가 태어난 화순의 생각, 말년을 보냈던 광주 지산동 고택 등이다. 이 세 집은 화가 오지호의 정체성을 지지하고 구현하는 곳으로 '따로 또 같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세 집은 단순히 장소적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 화백의 생과 예술이 아름다우면서도 독특하게 집약된 다층적인 공간들이다. 그의 생을 포태한 곳이 화순 동북의 생각라면, 그의 예술을 꽃피운 집은 지산동 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향집'은 송도(개성)고보 재직시 거주했던 곳으로, 작품으로 전이된 화폭속의 공간이다.

이 각각의 '집'들은 모두 하나로 수렴되는 특질을 지닌다. 바로 '빛'이 들어치는 생명의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빛고을 광주가 그의 삶과 예술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지산동 고택 작업실에는 북쪽 지붕으로 투명한 창이 나 있다. 하늘의 투명한 빛이 시시각각 스며든다. 창은 남도의 자연과 빛고을의 풍치를 매개한다. 서양화는 빛이 생명이라는 전제를 매우 극명하게 드러내는 배치다.

화순 동북의 생각에도 투명한 창이 나 있다. 오지호가 결혼을 하고 신접살림을 차렸던 방 한쪽은 온통 유리창으로 도배되어 있다. 그의 작가로서의 열정과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작품속의 '남향집'(국가지정문화재)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하다. 바로 빛 때문이다. 오지호는 "이런 겨울 따듯한 어느 날 오후 남향 초가집의 흰 벽과 그 앞에 있는 늙은 대추나무의 가지와 음양의 교차를 그린 작품"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맑은 공기와 투명한 빛이 들이치듯 쏟아지는 화폭은 따스한 정서를 환기한다.

그렇게 그의 '집'들과 그의 집들이 받아들인 '빛'은 고스란히 그의 그림이 되었다. 남도의 풍광과 본질에 대한 탐색은 그의 손끝을 거쳐 독특한 풍경화가 된 것이다. 오지호가 가장 빛고을다운 화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오 화백은 구한말 보성군수를 지낸 오재영의 8남매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비교적 유복한 환경이었으나, 청소년기의 그는 다소 불운했다. 부친이 3·1운동을 즈음해 일제에 항거하는 뜻으로 자결을 했기 때문이다. 부친의 비분강개와 절기가 자연스럽게 그에게 이어졌음은 불문가지다.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대의를 품는 정신은 이후 청년 오지호의 삶을 규정한다.

그는 휘문고보 재학시절 우리나라 최초 서양화가 고희동으로부터 그림 공부를 사사한다. 이후 일본의 동경미술학교에서 진학해 미술을 전공한다. 그의 손자 오병희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는 "할아버지는 일본의 풍토성이나 기후에서 기인된 외광파 화풍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고유의 감성과 표현성을 토대로 한국적 인상주의 미학을 개척했다"고 설명한다.

귀국 후 오지호는 서양화가들의 단체 '녹향회'를 창립한다. 김주경, 박광진, 심영섭, 장석표 등 청년화가들로 구성된 녹향회는 조선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의기투합한 단체다. 당연히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뒤따랐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족예술은 명랑하고 투명하고 오색이 찬연한 조선자연의 색채를 회화의 기초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인이 일본으로부터

사라이 문화자산이다

<24>화가 오지호와 광주 동구·화순



화순 생각 등 창 너머 오색찬연 풍광 화폭에 작품 대부분 현대미술관 기증...관람 기회 적어



오지호 작 '남향집'(1939년)

터 받은 일본적 압축의 색조를 팔레트에서 구축(驅逐·몰아서 내쫓음)하여야 한다."(최영주, '정경문화'(1982)

얼마 후 오 화백은 개성의 송도고보 미술교사로 취임한다. 조선총독부가 창씨개명을 강요하지만 그는 단호히 맞서 투쟁을 전개한다. 해방 후에는 조선대 교수(1949~1960)로 자리를 옮겨 광주와 남도 미술 발전을 위해 매진한다.

광주 동구 지산동에는 1954년부터 작고하기(1982년) 전까지 거주했던 초가(광주시 기념물 6호)가 있다. 이곳에는 오지호의 며느리이자 고 오승운 화백 부인 이상실 여사가 거주한다.

"생전의 아버님은 며느리인 저를 격의 없이 대하셨어요. 때사 정확했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셨지요. 붓 하나도 손수 빠싹 만큼 정갈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사는 "아버님의 유품이 잘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덜렁 있는 것보다 예술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요"라고 덧붙인다. 그럴 만도 하다. 오지호 화백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터라 이곳 남도에서는 거의 볼 기회가 없다. 광주시립미술관에도 몇 점이 기증됐다. 2007년까지만 해도 시립미술관 내에 오지호 전시실이 있어 일반인들이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있었다.

남도가 예향인 것은 허백련과 오지호라는 화단의 양대 산맥이 있어 가능했다. 빛고을이 문화수도로서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는 '빛의 화가'인 오지호를 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를 일컬어 '무등산의 별'이라고 일컫는 것은 자연주의적 삶, 화풍, 철학이 남도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초가 맞으면 오 화백이 열정을 불태웠던 화실에는 여전히 그의 예술혼이 청정하게 남아 있다. 이젤 아래 점점이 박힌 형형색색의 물감은 그의 실존을 명징하게 방증한다. 여전히 그는 우리들 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부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던가. "광주에 가면 크고 작은 세상일 굵어 보며 든든하게 버티고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물론 화순 모후산 자락에 오지호(1905~1982) 기념관이 있기는 하다. 화순군이 지난 2005년에 건립한 기념관은 오지호의 태지리인 동북 독상리 한적한 마을에 자리한다. 기념관은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전시실과 수장고를 갖췄다. 1층 전시실에는 '남향집' '항구', '사과밭' '시골소녀' 같은 명작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소묘작품 '풍경' 1점 외에는 모두 복사품이다. 지하 1층에는 국내 유명 화가들로부터 기증받은 작품들과 오지호의 아들 오승우 화백, 고 오승운 화백, 손자 오병희 등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오지호 화백은 서양화단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죠. 인근에 생가가 있어 광주 지산동과 연계하면 충분히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초기 개관 때 현대미술관으로부터 오 화백의 작품을 임대해 전시를 했습니다."

최순희 전남문화해설사의 설명이다. 이어 최 해설사는 "여기까지 온 관람객들이 오 화백의 진품을 볼 수 없어 안타까워 한다"면서 "1~2년에 한두차례라도 작품을 임대해서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시공후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